정수사 '진노랑상사화' 사진 담아보세요

정수사 첫 사진콘테스트 개최
전문가 · 휴대폰 카메라 부문
오는 8월 15일까지 공모 진행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강화 정수사 인근에 군락지가 형성돼 있는 진노랑상사화. 환경부 멸종위기식물 2급 보호종이다.

강화 정수사의 명물 '진노랑상사화'를 카메라 렌즈에 담아보는 사진콘테스트가 처음으로 열린다.

강화 정수사(주지 무진 스님)는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정수사 진노랑상사화 군락지에서 20일 간 '제1회 진노랑상사화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7월 9일 밝혔다.

강화 정수사의 명물인 '진노랑상사화'로 사찰로 올라가는 길 주변으로 약 500평 규모의 군락지가 형성돼 있다. 이 꽃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잎만 자라다가 초가을이 시작될 무렵 잎이 사라진 자리에 꽃을 피운다.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해 서로 그리워하는 서정이 담긴 상사화 중에 '진노랑상사화'는 강화도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으로 환경부 멸종위기식물 2급 법정 보호종으로 보호되고 있다.

사찰 내 뜨락 곳곳에 피어난 진노랑빛 상사화는 애절한 전설도 간직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한 처녀가 한 스님을 사모했다. 하지만 수행 중인 스님에게 고백을 하지 못하고 처녀는 상사병에 걸려 눈을 감고 말았다. 그 처녀가 죽고 나서 스님의 방문 앞에 꽃이 피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꽃은 잎이 진 다음 꽃이 피었다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상사화는 만날 수 없는 숨바꼭질 같은 영겁의 애틋한 사랑,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꽃이다.

정수사 주지 무진 스님은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꽃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상사화의 원초 뿌리는 하나이고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꽃과 꽃잎이 못 만나도 뿌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1300년, 새로운 역사를 잇다'를 주제로, '어찌 이리도 이쁠까'를 부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콘테스트는 전문가 부문과 휴대폰 카메라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 작품을 강화도 정수사 홈페이지에 진노랑상사화 개인 1작품과 정수사 풍경 1작품 총 2작품씩 업로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강화 정수사는 사진콘테스트 참여자를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함허동천 공영주차장에서 정수사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주말에는 마니산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정수사까지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무진 스님은 "사진콘테스트 부제 '어찌 이리도 이쁠까'처럼 잠시 시간을 내어 국민이 진노랑상사화를 보고 대자연 속에서 공감과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함허동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역에서 사찰의 문화적 역할과 홍보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효과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사진콘테스트 수상작 발표는 9월 9일 정수사 홈페이지와 불교계 언론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전문가 부문 총무원장상 1명에게는 2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중앙종회의장상·포교원장상·교육원장상·회주스님상 각 1인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휴대폰 카메라 부문 회주스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상장이, 주지스님상 1명에게는 상금 50만원과 상장이, BBS불교방송사장상 1명에게는 상금 30만원과 상장이 전달된다.

한편, 강화 정수사는 8월 10일 오후 6시 30분부터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함허동천 마을 사람들과 여름 휴가객이 함께하는 '개최식 및 함허동천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화엄사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 김주연 '소리와 공간' 스튜디오 대표가 음악감독을 맡은 정수사 작은 음악회에는 테너 박성근, 재즈 보컬 백효은, 하모니카 연주자 이병란, 피아니스트 안예현, 바이올리니스트 송태진·이연준 등이 참여해 멋진 화음을 선보일 예정이다.

나주 다보사 주지 만민 스님 취임

7월 6일, 취임 · 천일 기도 입재



전남 나주를 대표하는 사찰 조계종 다보사의 새로운 주지로 만민 스님(전 백양사 강사·사진)이 취임했다.

나주 다보사(주지 만민 스님)는 7월 6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주지 취임 및 천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만민 스님은 취임사에서 "백양사에서는 저를 보면 방구석에서 책만 보는 스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곳 다보사로 오면서 한 달 동안 쓸고 닦으며 청소를 했다. 앞으로도 다보사와 많은 대중을 위해 쓸고 닦으면서 절이 빛날 때까지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상에 오른 성오 스님은 법문을 통해 "주지 취임을 축하한다. 다보사는 법화경에 나오는 다보여래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다보여래는 법화경을 설하는 자리에서 늘 증명을 하시는 분이다"라며 "다보사에서 역대 큰스님들이 수행하셨던 그 모습이 만민 스님을 통해 다시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문에 앞서 교구본사인 백양사를 대표해 만당 스님은 "만민 스님은 백양사의 대강백이자 율주인 혜권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아 포교활동을 진력해 오셨다"며 "다보사는 많는 지정문화재와 앞으로 지정해야 할 문화재가 많다. 과거의 전통을 이으면서 새롭게 일신해, 그동안 침체된 다보사를 나주시와 협의해 나주를 대표하는 도량으로 만들어달라"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종사 유훈 기리며 수행 정진하겠다"

법륜종 종정 정각 대종사 영결 · 다비식 엄수

7월 8일 보현정사서 종단장
지역 포교 · 복지 발전에 헌신


다비식은 보현정사 주차장에 마련된 다비장에서 봉행됐다.

평생을 지역 포교 발전과 사회복지 활동에 헌신한 한국불교법륜종 종정 영산당 정각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7월 8일 목포 보현정사(주지 도안 스님) 대웅전 앞마당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법륜종 총무원장 성진 스님은 "노구를 이끌고 원행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종단의 화합이라면 물심양면을 아끼지 않으셨던 큰스님이 그립다"고 회고했다. 성진 스님은 "실천불교의 자비보살인 화신불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셨으니 어느 때 인연되어 다시 오실런지요. 큰스님의 그늘을 늘 그리워하며 종도와 함께 탁마하고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추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 스님이 대독한 조사에서 "정각 대종사께서는 평소 지역 포교와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후원과 청소년을 위한 기부와 나눔을 몸소 실천하셨다"며 "사부대중은 구도자로서 보여주신 스님의 모습과 덕화를 가슴속 깊이 오래도록 간직할 것이다"라고 추모했다.

영결식이 끝난 후 법체는 인로왕번, 명정, 삼신불번, 오방불번, 십이불번, 위패, 영정, 법주를 선두로 다비장으로 운구됐다. 운구된 법체는 보현정사 주차장에 마련된 다비장에 이운돼 장작 속에 안장되었다. 이어 대중의 외침과 함께 거화가 진행되고, 60 평생 수행자로 걸어오신 이승과의 인연을 다했다.

한편 정각 스님은 7월 4일 목포 보현정사에서 법랍 62년 세납 87세로 원적에 들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름밤 지리산 화엄사를 만끽하세요"

화엄사, 화야몽 프로그램 개최

여름밤 지리산 화엄사를 만끽할 수 있는 화야몽(華夜夢)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된다. 화엄사는 총 4차에 걸쳐 '2024 여름밤, 나, 그리고 가족'을 주제로 화야몽을 진행한다.

2024년 여름 화엄사 경내 야간 개장과 함께하는 화야몽 초청 프로그램은 신세대 젊은 가족 초청 프로그램(1차-7월 20일), 부부, 여인 초청 프로그램(2차-7월 27일), 자유 신청 초청 프로그램(3차-8월 10일), 부모님 모시고 함께하는 프로그램(4차-8월 24일)이 준비돼 있다.

화엄사는 이번 여름 야간 경내를 20시부터~24시까지 산문과 경내를 개방한다.

주지 덕문 스님은 "화야몽을 통해 여름밤 산사의 고요함, 스님들과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별빛, 은하수를 맘껏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화야몽 프로그램에는 화엄사의 대표적 MZ세대로 불리는 연성 스님(1차), 법문 스님(2차), 범정 스님(3차), 연우 스님(4차)이 지도법사로 나서 참가자들과의 이야기 꽃을 피운다.

화야몽 참가신청은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20명을 신청 가능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흥원, 제2회 대원청년회 워크숍 개최

전국 21개 대학 50명 참가해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이 7월 7일부터 9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제2회 대원청년회 워크숍 '나를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Ⅱ'를 개최했다.〈사진〉 워크숍에는 전국 21개 대학의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수상자 50명이 참가했다.

워크숍은 △이한구 진흥원 이사장(경희대 석좌교수)의 '나는 누구인가' 특강 △신진욱 진흥원 사무국장(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의 '마음챙김 명상,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해와 실습 △부산 보디야나선원장 혜안 스님의 '붓다의 명상을 배우다' 강의 및 실습 △양희연 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내 몸을 알면 내가 보인다' 요가 실습으로 진행됐다.

불국사 걷기 명상 프로그램과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천년고찰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신평천 흙길을 걸으며 경주의 자연을 느껴보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김민재 수습기자

청주BBS, 제12회 종교화합 무심음악제

7월 6일 청주 예술의전당서



청주 불교방송(사장 도암 스님)은 7월 6일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2회 종교화합 무심음악제'를 개최했다.〈사진〉

통합 청주시 출범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음악제에는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들과 이수한 신부(청주 분평동 성당 주임신부), 김태종 목사(충북사회문제연구소 희망언덕대표), 김영환 충북도지사 및 지역 단체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주 불교방송 사장 도암 스님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모여 소리를 만들어 가는 자리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것은 '다름과 존중'에 있다.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며 지역사회를 화합하는 하모니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음악제에서는 천주교 '최양업 토마스 앙상블'이 'Ubi Caritas'를, 개신교 '최콰이어 혼성합창단'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선보였다. 불교는 '보문정사 해조음 합창단'이 '비천'과 '석가모니불'을 공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광주 향림사, 천운당 상원 대종사 부도탑비 제막

7월 7일, 300여 명 동참
불교 포교사에 족적 남겨



호남지역 불교 포교의 큰 어른이었던 천운당 상원 대종사(1932~2010)의 부도탑비 제막식과 제14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사진〉

광주 향림사(주지 상범 스님)는 7월 7일 경내 천운당 상원대종사 부도탑전에서 대흥사 조실 보선 대종사,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암도 대종사, 향림사 회주 혜향 스님,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월우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을 비롯한 대흥사 문도스님과 광주불교연합회 소운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부도탑비 제막식과 제14주기 추모다례재를 진행했다.

보선 대종사는 "향림사 회주 혜향 스님, 주지 상범 스님이 훌륭한 부도탑비를 조성해 주셔서 감사하다. 비문을 써 주신 최성렬 교수에게도 감사하다"며 "스님께서 열반에 즈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 자신을 속이는 중노릇을 하지 말아라'고 하셨다. 오늘을 계기로 수행자로서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 불국정토를 이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지 상범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제작 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부도탑과 부도비는 향림사 신도들의 동참금과 혜향 스님을 비롯한 향림사 대중의 정성으로 조성됐다. 비문은 조선대 최성렬 명예교수가 지었고, 조각은 오채현 석장이 오석에 제작했다. 부도는 총 높이 3m에 연화좌대로 부조를 조각하고, 부도비는 총 4m의 높이에 귀부 위에 중앙비신 2.1m로 조성됐다.

한편 천운당 상원 대종사는 한국전쟁 당시 군 포교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한국불교 포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2010년 4월 14일 법랍 64세, 세수 79세의 일기로 광주 향림사에서 입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덕숭총림 수덕사 반결제 산행… 승보공양법회도

7월 4일 백제의 미소길 순례
200여 스님, 신도 800명 동참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7월 4일 하안거 반결제일을 맞아 가야산 가야사지에서 '갑진년 하안거 반결제 산행 및 우란분절 승보공양'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를 증명으로 수덕사와 정혜사, 개심사, 향천사, 견성암, 보덕사, 법계사 및 율원과 강원에서 안거 중인 200여 수행자와 신도 등 800여 명이 동참했다.

우송 대종사는 "반철산행, 승보공양법회는 보살행"이라면서 "성불하려면 보시해라"는 법어를 남겼다. 동참 대중은 스님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대중공양비를 전달하며 존경을 표했다.

도신 스님은 "덕숭총림은 근대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만공 스님과 조선시대 무학, 고려시대 태고 보우 스님 등이 정진했던 도량"이라며 "수많은 선사가 계셨음에도 '원효 깨달음의 길'로 제한된 것에 한계를 느껴 108.6km의 이 길을 '내포불교순례길'로 명명, 한국의 대표적 불교 순례길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했다.

승보공양 법회 후 대중은 가야사지를 출발해 잣나무길과 퉁퉁고개, 휴양림을 거쳐 보원사까지 총 7km 구간을 걸으며 가야산의 보존을 서원했다.

한편, 수덕사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내포불교문화의 중심인 가야산 일대를 지키기 위해 2007년부터 반결제 산행을 하고 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